

뉴스홈 | 최신기사

F1그랑프리-해밀턴, 역대 최연소 챔피언(종합)

송고시간 | 2008-11-03 17:04



김동찬 기자
기자 페이지

-F1그랑프리- 해밀턴, 역대 최연소 챔피언(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메르세데스)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1) 그랑프리 2008 시즌 챔피언에 올랐다.

해밀턴은 3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서 5위로 들어왔지만 종합 순위에서 98점이 돼 97점의 펠리페 마사(브라질.페라리)를 간신히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맛봤다.



극적인 우승이었다. 지난 시즌에도 최종 라운드 전까지 단독 1위를 달리다 브라질 대회에서 7위에 그치는 바람에 키미 라이코넨(핀란드.페라리)에 역전을 허용해 준우승에 그쳤던 해밀턴은 이번 대회에서도 6위 이하로 처졌더라면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끊은 마사에게 우승컵을 내줄 뻔했다.

해밀턴은 6위로 들어온 티모 글로크(독일.도요타)에 마지막 바퀴까지 뒤졌으나 레이스 막판 빙속에서 미처 우천용 타이어로 바퀴까지 못했던 글로크가 마지막 스퍼트를 하지 못한 덕에 결국 5.4초 앞서 5위로 들어오며 가까스로 시즌 우승컵을 지켜냈다.

1985년 1월7일에 태어난 해밀턴은 23세 9개월 26일에 F1 종합우승을 차지해 종전 최연소 챔피언 기록인 2005년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르노)의 24세 1개월 27일을 약 4개월 앞당겼다.

해밀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많은 팬의 성원이 있어 긴 시즌을 마칠 수 있었다"라며 "팀원들이 모두 자신을 희생해가며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냈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1점 차로 준우승에 그친 마사는 "불행하게도 1점이 모자랐지만 그것이 레이싱"이라며 "최선을 다해 훌륭한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F1 드라이버 사상 첫 흑인으로 지난 시즌 데뷔한 해밀턴은 첫째 2위에 이어 2년차 때 우승하는 등 탁월한 경기력에 잘 생긴 외모까지 겸비해 미하엘 슈마허(독일) 은퇴 이후 F1의 간판스타로 자리 잡게 됐다.

미국의 '육상 영웅' 칼 루이스의 성(姓)을 따 이름이 정해진 해밀턴은 어릴 때부터 스피드에 관심이 많았고 8살 때 자동차 경주 초보 단계인 카트 대회에 나가 우승을 했으며 13세에 맥라렌-메르세데스 벤츠의 '영 드라이버 서포트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카트부터 포뮬러 지역대회, GP2 등을 거쳐 2007년부터 F1에 데뷔,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2007 시즌 데뷔전부터 9회 연속 3위 내에 입상하며 탁월한 기량을 뽐냈다.

백인 어머니(카멘 라발레스티)와 흑인 아버지(앤서니) 사이에 태어난 해밀턴은 2살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12살 때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 아버지 앤서니는 그레나다에서 영국으로 거처를 옮긴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1996년 데이먼 힐 이후 12년만에 F1 우승자를 배출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해밀턴의 우승 소식을 듣고 "온 영국이 해밀턴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팀 순위에서는 페라리가 172점으로 151점에 그친 맥라렌-메르세데스를 제치고 2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email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3 17:04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당신을 위한 콘텐츠의 마당,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45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6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동재개 예열?

56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맛충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사제휴문의